

대기업, 고졸사원 신규채용 선호

회사충성도 · 업무열정 높고 성실 ... SKC도 2011년 144명 총원

최근 은행권이 학력 인플레이션과 고졸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3년간 고졸 행원 2700명을 채용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주요 대기업도 고졸사원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고졸 학력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남다르고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아 고졸 채용 확대추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LG그룹은 2011년 하반기 대졸 1300명(신입 900명에 경력 400명)과 기능직 2700명 등 4000명을 채용하면서 기능직의 50% 이상을 고졸 인력으로 선발기로 했다.

LG그룹은 상반기 기능직 5700명 가운데 3000명을 고졸 출신으로 채용했으며, 하반기에는 LG디스플레이 1300명을 포함해 1600명을 고졸 인력으로 채용 예정이어서 2011년 전체적으로 기능직 8400명 중 55%인 4600명을 고졸로 선발하게 된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마이스터고인 구미전자공고와 협약을 맺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0년 채용인력 900명 중 400명을 고졸자로, 2011년에도 선발 예정인 900명 가운데 절반 정도를 고졸 학력자가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0년 12월부터 마이스터고 출신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11년 2월 마이스터고 1학년 중 채용 예정자 100명을 선발했다.

채용 예정자들에게는 재학 학업보조비 500만원을 보조해주고 방학 중에는 현장실습을 시킨 뒤 졸업과 동시에 입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산직 사원으로 공고 출신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2011년부터 거제공고와 조선분야의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기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삼성중공업은 마이스터고에 기술자문이나 교육과정개발, 기자재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삼성 계열사들은 단순히 채용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협력을 통해 인재를 교육해 선발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나 기술 우수학생 등 고졸자를 정규직으로 특채하고 출신학교에 기금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10여 곳과 산학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SKC는 상반기에 고졸사원 44명을 채용했고 진천공장 증설에 따라 하반기에 10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매년 고졸자 150명 이상을 생산직으로 공개 채용해 서울, 인천, 부산, 논산 등에서 식품·제약·사료 공장을 운영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고졸 생산직을 생산현장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 키우고 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월22일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 80%가 대학진학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대학 졸업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며 “현장교육과 학과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사내 대학을 세워 고졸사원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25>